

東아시아에서의 茶戶里遺蹟

최 성 략*

I. 머리말

II. 다호리유적의 고고학적 위치

1. 유적의 시·공간적 위치
2. 다호리유적과 관련된 문제들

III. 다호리유적의 사회적 성격

1. 다호리유적의 취락과 주민의 성격
2. 다호리유적의 사회적 성격

IV. 동아시아에서의 다호리유적

1. 남부지역 철기문화의 형성과 대외적인 교류
2. 동아시아에서의 다호리유적

V. 맺음말

참고 문헌

* 목포대학교

I. 머리말

창원 다호리유적은 1988년에서 1992년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7차에 걸쳐 학술발굴이 이루어져 다수의 목관묘들이 조사되었다. 특히 제1호 목관묘는 통나무관을 사용한 무덤이고, 여기에서 출토된 漆鞘銅劍, 鐵劍, 板狀鐵斧, 甗, 小銅鐸, 星雲文鏡, 五銖錢 등이 알려지면서 고고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유적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1988년 9월 3일에 다호리유적 일대가 사적 제327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1997년에서 1998년에 걸쳐 한 차례 수습발굴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목관묘, 무문토기 포함층, 삼국시대 무덤(석곽묘, 석실묘), 祭祀遺構 등이 조사되었다.

발굴 20주년을 맞이하여 이 유적의 성격을 재검토하는 작업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다호리유적의 시·공간적 위치와 유적의 사회적 성격을 파악해 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다호리유적의 位相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고,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II. 다호리유적의 고고학적 위치

1. 유적의 시·공간적 위치

다호리유적은 다호마을 뒷산과 주남저수지로 이어지는 저습한 평지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 유적은 해발 433m의 九龍山 북서줄기와 이어지는 해발 20m 정도의 야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야트막한 구릉상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낙동강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다.

다호리 목관묘는 기원전 1세기 후반에서 기원후 1세기경의 원삼국시대 초기의 유적으로 인식되고 있다(이건무외 1989·1991·1993·1995). 또 다호리유적의 연대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임효택 1993, 이청규 1997, 정인성 1998, 안재호 2000)도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다호리 1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星雲文鏡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중엽경으로 보는 견해(이양수 2006)가 있지만, 제1호 목관묘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보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또 수습발굴된 유구나 유물, 발굴되지 않는 구릉상의 가

야고분을 염두에 둔다면 다호리유적의 전체적인 연대는 기원전 2세기 후반경에서 기원후 6세기경에 이른다.

2. 다호리유적과 관련된 문제들

다호리유적과 관련된 몇 가지 고고학적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호리유적이 어느 시대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기원전 300년의 획기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바로 세형동검(한국식동검)문화의 시작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두드러진 것은 바로 三韓時代論이다. 삼한 시대는 세형동검문화의 시작을 시점으로 하는데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후 300년까지로 설정되고 있다(안재호 1994, 신경철 1995, 김영민 2007).

다른 하나는 기원전 100년을 획기로 보는 관점으로 기원전 300년경의 세형동검문화의 시작을 인정하지만 기원전 1세기경도 중요한 획기로 보자는 것이다. 즉, 철기문화의 시작과 더불어 목관묘의 등장과 와질토기의 사용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시대구분을 初期鐵器時代와 原三國時代로 하면서 원삼국시대의 상한을 기원전 1세기로 보는 견해이다(이희준 2005). 다만 초기철기시대의 시작 연대를 방사성탄소연대에 근거하여 기원전 4세기경으로 수정하였다(박진일 2007). 이와 같이 시대구분을 달리하는 것은 삼한의 형성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¹⁾.

둘째, 목관묘의 기원 문제이다. 목관묘는 기원전 2세기경에 등장하여 기원후 2세기 중엽 목곽묘로 변화되기까지 주로 사용된 무덤이다. 목관묘의 기원을 中國 華南지역에서 찾는 견해(한병삼, 이재현 1992)와 중국 북부지역에 두는 견해(임호택 1992)가 있으나 청동기시대의 무덤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주현 1994)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1호 목관묘가 통나무 목관이며 그 아래에 腰坑이 있다는 점이다²⁾. 통나무 목관은 화순 대곡리유적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또 다른 무덤인 합구식 옹관묘는 대체로 목관묘와 함께 나타나는데 기원전 2세기경 황해도 명사리유적에서 처음으로

1) 시대구분의 문제와 더불어 다호리유적이 변·진한에 속하는 유적인지 아니면 초기 가야의 유적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역시 관점의 차이로 생각되나 가야의 시작을 대체로 기원후 1~2세기경으로 보고 있어 변·진한의 유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목관에 요갱을 두는 전통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음은 광주 덕남동유적(전남문화재연구원 발굴)에서 확인되었다.

출현하였다. 이 무덤들은 모두 청동기시대에 없었던 것으로 당시 주민들에 의해 새로이 채용된 무덤양식이다.

셋째, 토기 문제이다. 다호리유적에서는 무문토기와 와질토기가 공존하고 있다. 와질토기는 기원전 1세기경에 출현하여 기원후 2세기 중엽경 목관묘의 등장과 함께 신석와질토기로 변화된다. 와질토기가 낙랑토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신경철 1982)와 재래의 무문토기 제작기술이 樂浪의 製陶技術과 결합되었다는 견해(이재현 2002)가 있는 반면에 戰國系 製陶技術이 서북한지역과 중부지역을 거쳐 남부지역으로 파급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이성주 1998)와 중국계 灰陶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는 견해(정인성 2008)도 제시되었다. 영남지역의 토기 편년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다만 사천 늑도패총의 무문토기(경질무문토기)를 와질토기에 앞서는 단계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늑도패총의 하한연대를 기원후 1~2세기로 보는 견해(이재현 2002)도 있지만 와질토기가 보이지 않는 전남 동부지역과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기원후 3세기경까지 무문토기(경질무문토기)가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철기 문제이다.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철기류는 대체로 漢代 鐵器로 보고 있고, 戰國時代의 철기와 관련된 기원전 2세기경의 鑄造鐵器는 주로 湖西・湖南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영남지역에 戰國系 철기의 유입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戰國系 鐵製技術이 製陶技術과 함께 들어왔다는 주장(이성주 1998)이 있었고, 뒤이어 구체적으로 기원전 2세기경 戰國系 철기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즉 大邱 八達洞유적에서 출토된 雙合範의 鑄造鐵斧와 71호 목관묘에서 나온 鐵劍을 예로 들고 있고, 東萊 萊城유적에서 발견된 鍛冶遺構와 철기를 기원전 2세기 후반경으로 추정하고 있다(송계현 2002). 이러한 견해를 반박하면서 樂浪 설치 이후에 철기가 유입되었다는 주장(이남규 2002)이 있지만 前漢系 鐵器에 앞서는 유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다섯째, 유물의 다양함이다. 銅鏡, 五銖錢, 漆器, 甗, 부채, 목기 등 다양한 유물은 피장자의 身分이나 中國과의 交易을 보여줌과 동시에 文字의 사용 등 이전 시기에 비해 한층 발전된 社會相을 보여주는 증거이다(이건무 1992・1995・1999).

Ⅲ. 다호리유적의 사회적 성격

1. 다호리유적의 취락과 주민의 성격

다호리유적에서는 취락이 조사되지 않았으나 낙동강유역에서 발견된 당시의 취락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최근 주거지에 대한 연구성과를 참고한다면 다호리유적은 남해안지역에 속하므로 원형계 주거지와 방형계 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김나영 2007). 하지만 동남부지역에서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되는 주거지가 원형계임(이수홍 2007)을 고려하고, 다호리유적이 삼한시대 타원형주거지가 분포하는 지역(공봉석 2008)임을 감안한다면 이 유적의 주거지 형태는 원형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경의 다른 지역 취락을 고려한다면 이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호리유적을 형성한 주민들의 출자문제로는 이동설과 재지설이 있다. 먼저 주민 이동설로 목관묘의 원류를 중국 華南지역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토광묘의 피장자도 중국의 移住民이라는 주장이 있었다(이재현 1992). 이에 반하여 樂浪이 이전의 서북한지역 토광묘와 연결되고 이것은 북방지역 토광묘와 연결된다고 보면서 南下한 西北韓 주민들이 土着人과 결합하여 土着社會를 형성하였다는 견해가 있다(임효택 1992).

또 문헌 자료인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는 辰韓이 秦役을 피해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衛滿朝鮮系 주민의 이동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이현혜 1984). 이와 같이 삼한의 형성기에 중국으로부터 일부 주민의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떤 문화의 형성은 주민의 이동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문화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문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청동기시대 이래로 영남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았다. 다호리유적은 그러한 배경, 즉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또 기원전 1세기경에 새로이 많은 철기와 다양한 外來遺物들이 나타나는 것을 단순한 주민의 移動보다는 交易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다호리유적의 피장자들은 기원전 1세기경에 유입된 주민들이라기보다는 그 이전 시기, 즉 점토대토기가 유입되는 기원전 4~3세기경부터 이 지역에 자리 잡았던 주민들일 것이다. 또 다호리유적에서 세형동검이 출토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원형계 주거지가 있었다면 이는 점토대토기 단계로부터 있었던 주거양식인 것이다.

2. 다호리유적의 사회적 성격

삼한사회의 형성과정과 國의 출현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다호리유적의 발굴자들(이건무외 1989)과 마찬가지로 다호리 제1호 목관묘의 피장자를 가야 초기의 首長으로 보면서 이를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나오는 國을 다스리는 君長으로 본 반면 이보다 약간 늦은 良洞里<東> 제55호의 피장자는 蘇塗를 주관하는 天君으로 파악하고 있다(임효택 1993).

그런데 國의 출현을 가장 빠르게 보는 견해로 송국리유적이나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여수 적량동유적 등과 같이 청동기시대 중기에 이미 國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주장이 있다(武末純一 2002). 이보다는 늦지만 청동기를 통해 기원전 2~1세기경에 國이 형성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기원전 1세기 전반까지의 피장자는 祭儀를 주재하는 祭司長의 성격을 가진 首長이나 다호리 제1호 목관묘와 같이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였다(이청규 2002a). 반면 한·일 多紐細文鏡의 분석을 통해 2區 細文鏡(九鳳里類型)은 政治的 首長을 의미하고, 3區 細文鏡(東西里類型)은 祭司長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이양수 2004).

고고학 자료와 문헌 자료를 함께 살펴본 권오영(1996)은 國의 발전과정을 3단계로 보고 있다. 즉 청동기문화를 가진 衆國(辰國)단계에서는 靑銅儀器類를 통해 볼 때 최고 首長이 여러 邑落의 祭儀權을 장악한 司祭王의 모습이고, 다음으로 三韓의 國은 이와 달리 최고 지배자인 臣智가 존재하며 전 시기와 달리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국가 단계에 진입한 國들과 그렇지 못한 國들이 공존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三韓의 王이 4세기 이후 三國 정립기의 王과 그 성격이 달랐다고 보았다. 그런데 삼한 소국의 형성과정을 취락의 발전과정, 즉 邑落의 형성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희준 2000a)이 제기되었듯이 취락보다는 청동기 등 유물과 분묘 자료에 의해 國의 형성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낙동강 상류인 대구와 경주지역에서는 대체로 기원전 2~1세기경에 지역정치체, 즉 國이 형성되었다고 한다(이희준 2000b, 이청규 2002b). 낙동강 하류인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狗邪國의 성립 시기를 기원후 1세기로부터 기원후 3세기경까지로 보는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³⁾(이현혜 1984, 김태식 1991, 홍보식 2000, 이성주 2002). 그러나 다호리유적

3) 國의 형성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보면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고고학자와 문헌 자료를 함께 고려하는 고대사학자들 사이에 다소 차이가 보인다. 고고학자들은 國의 형성이나 古代國

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주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여전히 미비한 까닭도 있지만 변·진한에 속하는 國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호리유적은 변·진한(전기 가야)에 속하는 狗邪國과 安邪國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나 狗邪國과 서로 연결되는 곳이다. 狗邪國의 형성을 기원후 1세기 이후로 본다면 다호리유적은 바로 狗邪國이 성립되기 이전에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국 남부지역에서는 靑銅儀器類가 출토되는 시기에 사회 계층화가 이루어졌으며 邑落이 형성되고, 지배자(首長)도 출현하였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 속하는 다호리 제1호 목관묘의 피장자는 이미 祭司長에서 벗어나 國邑의 최고의 우두머리, 즉 首長(主帥, 臣智, 王)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원후 1세기경에는 그 주도권이 점차 김해지역(양동리유적 및 대성동유적)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본다.

IV. 동아시아에서의 다호리유적

1. 남부지역 철기문화의 형성과 대외적인 교류

중국에서의 철기문화는 春秋時代에서 戰國時代로 넘어가면서 본격화되었다. 戰國時代에는 그 여파가 동아시아 전체에 미쳤다. 중국 동부지역에서의 철기문화는 燕에 의해 발전되었고, 이것이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전달된다. 이 연대를 대체적으로 기원전 4~3세기로 보고 있으며 남부지역으로 전달된 것은 기원전 2세기경이다(이남규 2002).

남부지역의 철기문화에는 두 가지 루트, 즉 육로와 해로에 의해 파급된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루트는 대동강유역에서 한강유역으로, 여기에서 낙동강유역으로 파급되는 내륙의 길이고, 다른 루트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 일본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오는 길이다(최성락 1993).

그런데 다호리유적은 어떠한 루트의 영향을 받았을까? 즉 육로를 거쳐 들어온 루트일까? 아니면 해로를 통해 들어온 루트일까? 낙동강유역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정인성 1998), 철기(이남규 1999), 前漢鏡과 倣製鏡(이재현 2000·2004), 鑄造鐵斧와 板狀鐵斧(김도현 2002·2004) 등으로 보아 기원전 2세기대의 고고학 자료는 대구-경주지역에 주로

家の 개념을 엄격히 적용하여 형성시기를 낮추어 보려는 경향이 있다.

분포하지만 기원전 1세기경에는 낙동강유역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후 기원후 2세기부터는 낙동강 하류지역인 김해지역이 대외교류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또 낙동강유역의 목관묘는 호남지역에서 보이는 양상과 아주 다르다. 호남지역에서는 주구를 가진 토광묘(목관묘)가 기원전 1세기경에 나타나서 기원후 3세기경까지 유행한다(최성락 2002). 따라서 다호리유적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 해로를 통해 유입되는 문화의 영향보다는 육로를 거쳐 들어온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철기문화의 형성 이후에는 호남지방과 영남지방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하나의 예로는 유적의 형성이다. 영남지역에서는 철기문화가 시작되는 기원전 2세기경 이래로 대구 八達洞, 경산 林堂洞, 경주 朝陽洞, 창원 茶戶里, 김해 良洞里 등 한 유적에서 거의 연속적으로 유구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비해 호남지역에서는 남해안지역의 패총을 제외하면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까지의 유적이 극히 드물게 발견된다. 그리고 이 시기의 문화양상, 즉 무덤이나 주거지 등에서도 영남지역과 서로 차이가 나고 있다. 다만 남해안을 따라 형성된 패총의 경우에는 서로 공통적인 문화를 공유하였다.

다음은 대외적인 교류문제이다. 낙동강유역에서 중국 前漢系 유물이 집중적으로 나온 이유는 바로 육로를 통한 교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이나 낙랑과 관련되는 유물로는 星雲文鏡, 五銖錢, 말 및 수레 부속구, 허리띠 장식(帶鉤), 印章, 銅鼎, 弩器, 銅鏃, 樂浪土器 등이 있다(이재현 2007). 기원전 1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漢鏡은 漢郡縣지역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朝貢이나 다양한 交易에 의해 조달될 수 있으며, 중국 본토와는 樂浪을 경유한 3단계 원거리 중계 혹은 간접무역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이재현 2000, 이청규 2002).

한편, 다호리유적에서 일본과 관련된 유물로는 中廣形銅鉾가 있지만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경 남해안지역에서는 일본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中廣形과 廣形銅鉾와 中廣形銅戈 등이 있고, 야요이토끼류가 있다(이재현 2007, 井上主稅 2006). 다만 中廣形銅戈와 銅鉾는 이 지역에서 만들어져 일본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것은 狗邪國을 중심으로 철을 樂浪과 倭에 공급하였다는 『三國志』의 기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 동아시아에서의 다호리유적

동아시아에서 청동기문화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에 이르게 된다. 반면에 철기문

화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거의 동시에 일본으로 전달된다. 이는 육로가 중심이었던 과거와 다르게 새로이 해로를 통해 문화파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해로를 통한 문화 전달은 그 이전보다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출발한 철기문화가 日本 九州지역에 도달하는 시간은 비파형동검문화나 세형동검문화가 도달하는 시간에 비하면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다<표 1>.

표 1. 동아시아 고고학 편년표(방사성탄소연대에 근거를 둠)

年代	中國 東北地域		韓國 南部地域			日本 九州 北部地域		
BC. -	商		青銅器時代	早期	突帶文土器	繩文時代		
1000 -	西周	美松里型土器 琵琶形銅劍 雷文鏡		前期	孔列土器			
-	春秋	粘土帶土器 (涼泉文化)		中期 (後期)	松菊里型土器 琵琶形銅劍	弥生時代	早期	突帶文土器
-			戰國				鑄造鐵器	前期
500 -	秦		中期	細形銅劍				
-	前漢	前漢鏡			後期		前漢系鐵器	
1 -	後漢	(新) 王莽錢 後漢鏡	鐵器時代・三韓時代	茶戶里木棺墓				
-								
200 - AD.			原三國時代					

그런데 이성주(2007)는 거시적인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의 체계로서 동아시아 세계체계의 형성과 변형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이러한 거시적인 체계 내에서 중심지역인 중원 문명 및 그 거점과 주변지역인 한반도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반도 청동기시대 전기 사회와 청동기시대 후기(초기철기시대) 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에 하나의 동아시아 세계체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불완전한 면이 많다. 오히려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시기, 즉 기원전 1세기경에 이와 같은 세계체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철기문화의 파급은 그 전 단계의 문화파급보다도 상대적으로 빨랐고, 상호교류가 되었음이 고고학 자료와 문헌 자료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호리유적이 출현하는 시기, 즉 기원전 2~1세기경에는 중국-한국-일본이 연결되는 하나의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고 본격적으로 상호교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국가 이전 단계의 國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國이 바로 다호리유적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로는 다호리유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물, 즉 星雲文鏡·五銖錢·小銅鐸·허리띠장식(帶鉤)·漆器화살통·漆器국자·붓·부채 등이 있다.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해로상에 분포하는 패총에서 중국의 철기문화와 더불어 그 이전의 문화가 동시에 유입되는 현상이다. 즉 卜骨, 製陶技術(回轉軸이용과 打捺技法 등), 合口式 甕棺墓 등 중국의 철기문화 이전 문화요소들이 뒤늦게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V. 맺음말

창원 다호리유적은 한국 남부지역에 중국으로부터 철기문화가 파급된 이후 세형동검 문화를 가진 집단이 새로운 철기문화를 수용하면서 형성된 유적이다. 이 중에서 제1호 목관묘의 주인공은 변·진한 사회의 최고 우두머리, 首長(主帥·臣智·王)으로 추정된다. 또 이 유적이 형성되는 시기는 중국-한국-일본 등 동아시아가 처음으로 하나의 커다란 문화체계를 형성하였던 시기이며, 그 속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다호리유적은 학술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쉬운 점이 많다. 앞으로 주변에서 취락지를 포함하여 목관묘 단계 이전과 이후의 유구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이 지역 문화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적의 주변지역에 대한 꾸준한 학술발굴을 통해 다호리유적의 성격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중요한 유적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아직 이 문제가 언급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다호리유적이 잘 정비되어 이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공복석, 2008, 「경남 서부지역 삼국시대 수혈건물지의 구들 연구」 『한국고고학보』 66
- 金羅英, 2007, 「嶺南地域 三韓時代 住居址의 變遷과 地域性」 『嶺南考古學』 43
- 金度憲, 2002, 「三韓時期 鑄造鐵斧의 流通樣相에 대한 檢討」 『嶺南考古學』 31
- , 2004, 「고대 관상철부에 대한 검토-영남지역 분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53
- 金榮珉, 2007, 「三韓時代論 再考」 『石軒 鄭澄元教授 停年退任論叢』, 부산고고학연구회는
중간행위원회
- 金泰植, 1991, 「가야사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韓國古代史論叢』 2
- 武末純一, 2002, 「日本 北部九州에서의 國의 形成과 展開」 『嶺南考古學』 30
- 朴辰一, 2007, 「粘土帶土器, 그리고 靑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 『韓國靑銅器學報』 1, 한국
청동기학회
- 宋桂鉉, 2002, 「嶺南地域 初期鐵器文化의 受容과 展開」 『영남지역의 초기철기문화』 제11
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申敬澈, 1982, 「釜山·慶南出土 瓦質系土器」 『韓國考古學報』 12
- , 1995, 「三韓·三國時代의 東萊」 『東萊郡誌』, 東萊郡誌編纂委員會
- 安在皓, 1994, 「三韓時代 後期瓦質土器의 編年」 『嶺南考古學』 14
- ,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鶴山 金廷鶴博士 頌壽
紀念論叢, 學研文化社
- 李健茂, 1992, 「茶戶里遺蹟 出土 붓(筆)에 대하여」 『考古學誌』 4,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 1995, 「韓國式銅劍의 組立式 構造에 대하여」 『考古學誌』 7,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 1999, 「茶戶里遺蹟 出土 부채자루(扇柄)에 대하여」 『考古學誌』 10, 韓國考古美術
研究所.
- 李健茂·李榮勳·尹光鎭·申大坤,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Ⅰ」 『考古學誌』 1,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李健茂·尹光鎭·申大坤·金斗喆, 1991,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Ⅱ」 『考古學誌』 3,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李健茂·尹光鎭·申大坤·鄭聖喜, 1993,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Ⅲ」, 『考古學誌』 5,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李健茂·宋義政·鄭聖喜·韓鳳奎, 1995,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Ⅳ」, 『考古學誌』 7,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李南珪, 1999, 「韓半島 古代國家 形成期 鐵製武器의 流入과 普及-中國과의 比較的 視角에서-」, 『韓國古代史研究』 16
- , 2002, 「韓半島 細形銅劍期 鐵器文化의 諸問題」, 『細形銅劍文化의 諸問題』 九州考古學會·嶺南考古學會 第5回 合同考古學大會
- 李盛周, 1997, 「辰·弁韓 鐵製武器의 樣相에 대한 몇 가지 檢討-起源期의 樣相과 變形過程을 中心으로-」, 『嶺南考古學』 21
- , 2002, 「考古學上으로 본 金官加耶의 國家的 性格」, 『盟主로서의 金官加耶와 대가야』 제8회 가야사학술대회
- , 2007, 『靑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學研文化社
- 李秀鴻, 2007, 「東南部地域 靑銅器時代 後期の 編年 및 地域性」, 『嶺南考古學』 40
- 李陽洙, 2004, 「多紐細文鏡으로 본 韓國과 日本」, 『嶺南考古學』 35
- , 2006, 「星雲文鏡 製作技術의 두 가지 系譜」, 『嶺南考古學』 38
- 李在賢, 1992, 「三韓時代 木棺墓에 관한 考察-특히 中國 流移民의 등장과 관련하여-」, 『부산고고학연구회 발표요지』
- , 2000, 「加耶地域出土 銅鏡과 交易體系」, 『韓國古代史論叢』 9,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 , 2002, 「弁·辰韓 土器의 形成과 展開」, 『영남지역의 초기철기문화』 제11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 2004, 「영남지역 출토 삼한시기 倣製鏡의 文樣과 의미」, 『韓國考古學報』 53
- , 2007, 「원삼국시대-동남부지역」, 『한국고고학강의』, 사회평론
- 李柱憲, 2004, 「三韓의 木棺墓에 대하여」, 『古文化』 4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李清圭, 1997, 「嶺南지방 靑銅器文化의 전개」, 『嶺南考古學』 21
- , 2002a, 「嶺南지역의 靑銅器에 대한 論議와 解釋」, 『嶺南考古學』 30
- , 2002b, 「기원 전후 慶州와 周邊과의 교류-토기와 청동기를 중심으로-」, 『國家形成期 慶州와 周邊地域』 한국상고사학회 연구총서 4, 학술문화사
- 李賢蕙,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 李熙濬, 2000a, 「삼한 소국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취락 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43
- _____, 2000b, 「대구 지역 고대 정치체의 형성과 변천」 『嶺南考古學』 26
- _____, 2004, 「초기철기시대 · 원삼국시대 再論」 『韓國考古學報』 52
- 任鶴鐘 · 洪鎮根 · 蔣尙勳, 2001, 『昌原 茶戶里遺蹟』, 國立中央博物館
- 林孝澤, 1992, 「洛東江下流域 伽倻墓制의 系統」 『加耶史의 諸問題』, 한국고대학회
- _____, 1993, 『洛東江下流域 加耶의 土壙木棺墓 研究』, 漢陽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井上主稅, 2006, 『嶺南地方 출토 倭系遺物로 본 한일교섭』,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鄭仁盛, 1998, 「낙동강유역권의 細形銅劍 文化」 『嶺南考古學』 22
- _____, 2008, 「瓦質土器의 ‘樂浪土器 影響說’ 檢討」 『韓 · 日交流의 考古學』 제8회 合同考古學大會
- 崔盛洛, 1993, 『韓國 原三國文化 研究』, 學研文化社
- _____, 2002, 「삼국의 성립과 발전기의 영산강유역」 『韓國上古史學報』 37
- 韓炳三, 1992, 「동북아 고대문화에 있어서의 원삼국 초기문화-창원 다호리유적을 중심으로-」 『동북아 고대문화의 원류와 전개』 제11회 마한 · 백제문화 국제학술대회
- 洪潛植, 2000, 「고고학에서 본 金官加耶」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